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7월 1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주 태 영 -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 돌이 되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영통성전에서 은혜와진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20주가 되었을 때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어머니는 그 때부터 거동을 삼가신 채 낮 12시가 지나면 달력의 날짜에 빗금을 하나 긋고, 밤 12시가 지나면 반대편 빗금을 그어가며 저를 건강하게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5주가 되었을 때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것처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의 직장 파견근무로 인해 가족이 경북 구미시에서 지내게 되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독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학교 생활이 주는 크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며 성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수원으로 올라와 지금까지 영통성전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무척 즐겁고 행복했던 한편으로 후회가 되는 것도 많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교역자님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교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고 사랑이 충만하셨습니다. 또한 교회학교에서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특히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잊히지 않습니다. 여름수련회에 참석하여 성령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냥 즐거웠던 중학생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학교 성적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학교 내신성적과 다가올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만화책이나 TV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고 종합장에 그리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당시에 학교 수행평가나 교내 대회에서 PPT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미래 직업이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활동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크로키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동아리와 웹소설을 만드는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부모님이 저의 진로에 관련하여 캐릭터 디자이너 또는 미디어 영상제작 분야를 추천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그림과 미디어 관련 학과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와진리찬양 263장) 저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시모집 전형을 통해 원하던 대학교 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것처럼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저는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한층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처음 참석한 겨울수련회에서 교회학교 부서에서 차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경건훈련을 지속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의 특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교회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자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학교 과제물 작업을 하다보니 금방 몸이 피곤해지고 지쳤습니다. 의욕을 잃고 귀찮아 하면서 책상에 과제물이 쌓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청년 모임과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줄고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가족과 청년봉사선교회의 선배 청년들과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은혜와진리찬양 215장) 저도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처한 환경과 분위기가 어떠한, 세상이 어떠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신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다시 청년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함께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주 안에서 교제하고 축복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알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기관과 부서에 소속하여 교회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

습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쉽게 지치고 자주 피곤해하던 몸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등교하여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한 다음, 예배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취업할 분야에 관련한 자기개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 삼고 부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훈련병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대 전 참가한 우리 교회 온라인 청년수련회 구역모임에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군 생활 내내 저와 함께하셔서 친절하고 성품이 좋은 간부와 선임들을 만나고 어떤 사고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은 격려와 축복의 편지를 보내주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휴가를 나와 교회의 예배와 청년모임에 참석하면 말할 수 없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후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찬양팀원으로,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함께 하고 또 봉사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특강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힘써 기도하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부정적인 사회현상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뚜렷한 말세의 징조를 느끼며 복음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에서 저는 특히 문화와 미디어에 관한 특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고 반성경적이며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각종 문화예술작품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널리 확산되는 상황에 비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디어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다루는 청년 성도로서 앞으로 미디어 분야의 일을 통해서 세계선교에 기여하게 되기를, 성경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널리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세상 풍조가 어떠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북한땅 곳곳에도 우리 은혜와진리교회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등 성경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사리사욕과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힘써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2권 (제2단원 :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제5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 본문 : 누가복음 4:16-21
- 요절 :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 찬송 : 257장(새찬송가 520장), 268장(새찬송가 505장)

신약 성경에서 복음(福音)이라는 말의 헬라어 ‘유양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가스펠(Gospel)’로 번역되었거나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굿 뉴스(Good news)’로 번역되었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福音)’이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좋고, 기쁘고, 복된 소식인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음은 영벌에 처한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原罪)를 유전 받아,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공의로우신 것이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범죄한 인생들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낫을 피해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 저주를 선포하셨으나, 이와 더불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창 3:15).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위한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죽음과 다름없는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에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면 어떠할까요? 아마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할 나머지 몇 번이고 사면 통지서를 읽고 또 읽을 것이며, 꿈인지 생인지 알아볼 양으로 자기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복음은 마치 사형수에게 내려진 사면 통지서와 같습니다.

2.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보게 하사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죄짐을 진 인생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통해 몸소 인생들의 고충을 체휼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3.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외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사람을 고쳐 주시니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마 12:22~28).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비록 이 땅에 죄악과 질병과 저주가 있고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질병이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이며 마침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죄와 사단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웅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